

내집 마련, 광역시 8.6년 걸린다

■ 국토연구원 2006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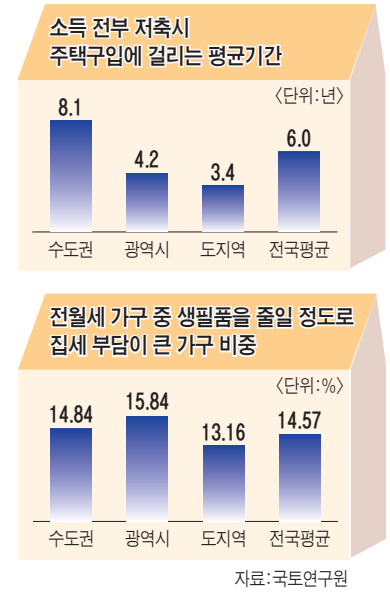
주택값, 평균 연소득 대비 전국 6배·수도권 8.1배

우리나라의 주택 평균가격은 국민이 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6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과 비슷하며 특히 수도권 주택값은 8년 이상의 소득층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가구주가 된 이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평균 8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연구원이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균 연소득대비 주택 가격(PIR)은 전국 6.0배, 수도권 8.1배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조사때와 비교할 때 전국 평균은 같지만 수도권은 0.4배가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에서 내집마련하

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PIR을 평균 개념으로 할 경우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이 특별히 높은 경우가 포함되면서 왜곡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중위수 기준 PIR도 처음으로 발표했다. 중위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PIR은 전국 4.2배, 수도권 5.7배로 나타나 평균으로 할 경우보다는 크게 낮아진다.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평균은 전국 22.9%, 수도권 25.3%로 조사돼 2005년(24.0%, 26.0%)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중위수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18.7%, 19.9%로 나타났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가구의 LTV1(금융기관 대출액/주택구입가격)은 전국 평균 36.5%, 수도권 35.7%로 조사돼 1억원 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3천5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가 된 이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8.07년, 수도권 7.90년, 광역시 8.60년, 도지역 7.98년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은 전국 7.66년, 수도권 5.33년, 광역시 7.20년, 도지역 11.34년으로 조사됐다. 주택자산은 전국평균 1억1천803만

원, 수도권 1억7천492만원, 광역시 7천906만원, 도지역 5천986만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컸으며 고소득층(소득 9~10분위)의 주택자산은 2억7천535만원으로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4.9배에 이르렀다. 또 고소득층(수도권 기준)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64.78%, 단독주택이 21.09%인데 비해 저소득층은 아파트 26.73%, 단독주택 51.47%로 조사됐다. 자가주택 마련방법으로는 기존주택 구입이 52.64%로 신규분양(27.56%)의 약 2배에 이르렀으며 현재 주택사 용면적은 평균 67.33㎡로 파악됐다. 아울러 2년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는 수도권이 13.4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이시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주택규모(16.42%), 주택가격(16.09%), 교통여건(11.91%) 순이었다. 무주택가구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를 물은 결과에서는 입주하겠다(41.82%)가 입주하지 않겠다(35.91%)보다 소폭 높았다. /연합뉴스

기업대출 잔액 357조8,504억원

주택대출 억제로 가계대출 3년만에 앞서

주택담보대출 억제조치로 은행대출이 중소기업으로 몰리면서 기업대출 잔액이 근 3년만에 가계대출 잔액을 추월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50조3천810억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7천762억원 증가한 데 비해 기업대출은 무려 9조2천790억원이 늘어나면서 잔액이 357조8천504억원을 기록했다.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가계대출 잔액보다 많은 것은 2004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과거 은행들이 기업대출 일반보다 영업하던 때는 기업대출 잔액이 가계대출 잔액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2000년 이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2004년 9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269조6천521억원으로 기업대출 잔액(267조9천530억원)을 사상 처음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두 부문간 대출잔액 격차는 점차 벌어져 2005년말에는 가계대출 잔액 304조7천498억원, 기업대출 잔액 275조3천357억원으로 격차가 거의 30조원에 달했다. 작년말에도 가계대출 345조6천422억원, 기업대출 317조5천573억원으로 두 부문간 격차가 30조원 가까이 유지됐다. 그러나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규제로 가계대출이 급속히 위축된 반면 기업대출은 급격한 팽창세를 나타내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올해 1~6월 주택담보대출이 7천94억원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7천388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기업대출은 40조2천931억원이나 급증했다. /연합뉴스

포스코, 상장사 영업이익 '지존'

2분기 1조 2,470억원... 삼성전자 추월

올해 1·4분기에 기대 이상의 경영실적을 올렸던 포스코가 2·4분기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확대, 판매시황 호조 등으로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했다. 포스코는 16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4분기에 매출액 5조8천150억원, 영업이익 1조2천470억원, 순이익 1조1천13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업이익 규모는 삼성전자의 2·4분기 영업이익 9천100억원을 3천370억원 초과한 것으로 포스코가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은 2004년 4·4분기에 이어 두번째다. 포스코는 또 반기·분기매출 최대를 기록했으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 원대에 달하고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상승했다. 포스코의 양호한 경영실적은 자동차 강판, 전기강판, 고급API강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확대 및 판매시황 호조 지속, 원가절감 등에 힘입은 것으로 1분기 대비 매출액은 2.0%, 영업이익

과 순이익은 각각 12.1%, 13.3% 증가했다. 2·4분기 조강생산량은 상용 파이넥스 준공, 포함 2제강 탈린로 준공, 주요 설비 개·보수 등으로 1분기 대비 3.5% 증가한 781만7천t을 기록했으며 제품 판매량도 754만9천t으로 늘었다. 포스코는 국제 니켈가격 등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혁신기법을 적용한 조업 방법 개선, 범용 내화물의 글로벌 소싱 확대 등 원가절감 활동으로 3천691억원의 원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발표하고 있는 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은 철강 및 E&C부문의 판매증가에 따라 1·4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4%, 6.5% 증가한 8조2천340억원과 1조4천170억원을 기록했다. 이통회 포스코 부사장은 IR에서 "지난 5월 준공한 파이넥스 상용화 설비가 올 연말 목표 수준인 일 4천300t에 근접하는 일 3천800~4천t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목표치인 95%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포스코는 16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4분기에 매출액 5조8천150억원, 영업이익 1조2천470억원, 순이익 1조1천13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스코 파이넥스 플랜트에서 쇳물을 출산하는 모습. /연합뉴스

귀금속·보석류 특소세 없앤다

이르면 내년부터... 원자재 구매비용 저금리 지원

현재 귀금속과 보석류에 붙는 20%의 특별소비세가 이르면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상품거래소 형태의 독립법인인 '금유통관리기구'를 세워 금 유통과 품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의 환금성도 높인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당 200만원이 넘는 귀금속·보석류에 부과되는 20% 특소세를 내년 이후 폐지할 방침이다. 가공에 필요한 원석 등 원자재 구매비용도 '산업기반조성자금'을 통해 내년부터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업체당 20억원 범위에서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연리 4.75% 조건의 융자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중 산하연이 함께 참여하

는 귀금속·보석산업 '지역혁신센터' 지정하고 이를 통해 공동장비·마케팅·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09년부터 10년동안 해마다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센터 지원에 투입된다. 지난 2005년말 지정된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와 같은 귀금속·보석산업 집적 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도 확대하고 대구·익산·서울(중로)·부산 등에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한다. 또 정부는 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거래 투명화와 유통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금유통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올 수입차 신규 등록 2만5천대 돌파

일 Honda 14.2% 최고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올 상반기 총 2만5천495대의 수입차가 신규 등록돼 지난 1987년 수입차시장 개방 이후 최초로 '상반기 2만5천대 신규등록'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기록한 2만193대에 비해 26.3% 늘어난 것으로, 올해 '수입차 등록 5만대'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지난해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4만

530대였다. 브랜드별로 상반기 등록현황을 보면 Honda가 14.2%(3천610대)로 수입차 업체 가운데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렉서스 13.9%(3천547대), BMW 13.5%(3천437대), 메르세데스-벤츠 10.8%(2천761대) 등의 순이었다. 모델별로는 Honda CR-V가 1천870대 신규 등록된 것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으며, 렉서스 ES350 1천596대, BMW 320 880대, 인피니티 G35 세단 876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정부 서민부담 줄여준다더니... 프로판 가스 세금인하 제외

정부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더욱 서민연료격인 프로판 가스의 세금은 인하를 추진하던 방침과 달리, 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1ℓ 당 134원씩 붙는 특소세를 낮추고 1ℓ 당 23원인 판매 부가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프로판 가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산자부는 당초 지난 3월 김영주 장관과 석유·가스업계 대표와의 회동에서 올해 석유·가스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가격은 저렴하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와 프로판의 가격이 높다"며 등유와 프로판 가스의 세금 인하를 내세웠다. 등유의 경우 1ℓ 당 134원, 프로판 가스는 kg당 40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프로판 가스 가격에서 세금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광역시정보센터	[응용프로그래밍/웹디자인/웹프로그래밍] 정규직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7/17	062-224-8564
☎에스티에스커뮤니케이션	[광주]삼성생명콜센터 상담직(안바운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62-600-0804
☎한국기업데이터(주)	마케팅(영업)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2-3215-2367
☎대창 E&T	대표이사 비서 및 4대보험/텔레콤 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62-383-6831
☎신원전자정밀(주)	경리 사무업무 담당자	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21	062-944-8471
☎에스티티	전자제품 운반 운송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2	062-514-6464
☎에너스컨설팅(주)	건축분야 고급 및 특급기술자	초대졸/경력10년	회사내규	07/23	062-572-5500
☎태광리얼코	전기기사(시설관리/광주)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7/23	02-757-8404
☎세종항공여행사	여행, 관광, 항공, OP, 사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62-222-2209
☎삼성정보문화개발(주)	재무, 회계관리 경력직	고졸/경력10년	2400~2600	07/24	062-222-6637
☎TPC메카트로닉스	기술영업(필드) 경력/신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32-580-0206
☎우성&C	광주 이프유 아이리팅 매장 판매직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7/25	010-9780-2233
☎하남중공업(주)	CNC기능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5	062-955-3366
☎윤선생영양교실(광주북구점)	[영양교육전문학교]상담/관리 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25	062-526-0566

(광주직접코리아 512-6210 제공)

"직장내 파벌로 피해 봤다" 직장인 10명 중 6명 경험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내 파벌로 인해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직장인 1천136명을 대상으로 '현재 근무하는 직장내에 파벌이 존재하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66.9%가 '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파벌 유형으로 '같은 부서끼리'가 28.4%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학교'(27.0%), '같은 지역'(17.9%), '입사 동기'(15.5%)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 60.7%는 이러한 직장내 파벌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성별로 여성(65.1%)이 남성(58.4%)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자신이 당한 피해로는(복수응답) '회사내 입지가 좁아졌다'(46.0%)와 '소외감을 느꼈다'(42.7%)가 주된 것이었으며,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다'(23.2%), '성과를 빼앗겼다'(18.0%),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했다'(15.0%) 등도 있었다. 파벌에 대해 85.0%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가운데 그 이유로는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37.5%)가 가장 많았으며, '조직의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33.0%),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16.3%)라는 의견도 있었다. /연합뉴스